

News

한은 금통위원 6명 중 4명 “물가 오름세 경계…금리 추가인상 필요”

조선비즈

한은, 지난 2월 24일 개최한 금통위 의사록 공개… 금통위 위원들 6명 중 4명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 필요하다는 의사 밝혀…

만장일치로 금리동결 결정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시중 유동성 증가 흐름 여전하다는 판단…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중점두고 통화정책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

‘LTV·DSR·총량’ 대출규제 3종 차례로 풀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즉, LTV·DSR·가계부채총량 등 대출규제 3종 세트를 제한적으로 풀는 방안 추진… 인수위 업무 설정 과정에서 세부안 반영 예정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정할 것으로 보여… DSR 3단계 시행시기인 7월 전에 윤곽 잡힐 것으로 예상

주담대 변동금리 코픽스 2월 1.70%…2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

e대한경제

2월 중 신규취급 기준 코픽스, 1.70%로 전월대비 0.06%p 상승… 지난 1월 기준금리 인상이 수신금리에 반영되면서 코픽스도 함께 인상된 것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도 당장 내일부터 인상될 예정… 2월말 잔액기준 코픽스도 1.44%로 전월비 0.07%p 상승

지방은행보다 못한 장기지급능력…하나은행, NSFR 3년래 ‘최저’

CEO스코어데일리

하나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이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낮아… 주요 시중은행 4곳 평균은 109%… 하나은행은 105.26%

코로나19 본격 확산된 2020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떨어져… 사측은 NSFR지표 산출시 대출 상당 부분 만기 연장된다고 가정하에 인출건에 대한 유동성 낮게 평가한 점 존재 설명

환율 리스크에 벌벌 떠는 생보사

한국경제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까지 치솟아… 그간 적극적으로 늘려온 해외 투자가 환 리스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지난 11월 국내 생보사 23곳의 외화유가증권 규모 104조 9,436억원… 전년 말 대비 3조원 이상 증가… 보험사들은 감내 가능 입장… 당국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 내리지 않은 상태

금리인상에 보험사 RBC '출령'…NH농협생명, 5년만에 후순위채 발행

연합인포맥스

NH농협생명, 이달 중 2,5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오는 24일 예정된 수요예측 결과 고려해 발행 규모를 최대 5천억원까지 늘릴 가능성도 열어…

최근 금리인상 속도 빨라지면서 보험사들 둘러싼 건전성 우려 급격히 커지는 중… 발행 속도 내는 배경에 RBC비율 200%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

부동산 조각투자 꽂힌 증권사…SK증권·하나금투 이어 한국투자증권도 합류

핀포인트뉴스

증권사들, 부동산 DABS 플랫폼과의 협업 강화로 새로운 수익원 낙점한 모습… SK증권에 이어 하나금투와 한국투자증권도 관련 플랫폼 루센트블록과 업무협약

DABS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 가져가는 구조로 협업 진행 예정…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자산관리 솔루션 공동 개발도 추진

지수 급락에…증권사 권유한 TDF 수익률도 '뚝뚝'

뉴시스

국내외 증시 크게 하락하면서 퇴직연금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는 중인 타겟데이트펀드(TDF) 수익률이 크게 휘청이는 중

대부분 상품들이 마이너스(-) 기록 중인 가운데, 연초대비 12% 넘게 떨어진 상품도 존재… 삼성한국형TDF2055와 삼성한국형TDF2050이 가장 부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